



황인길/ 본회 비상근 이사
아남산업(주) 사장

INNOVATION은 국제경쟁력 제고의 원천

금년은 그 어느때보다도 더 국내외적으로 격동의 한해였다. 유럽통합, NAFTA인준, APEC정상회담, UR타결 시한과 같은 이러한 사건들은 앞으로의 세계경제 질서를 판가름하며 우리의 수출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국내적으로는 32년만에 출범한 문민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의 전부문에 걸쳐서 숨돌릴 틈조차 없을 정도로 개혁을 추진해 왔다. 또한 올해에는 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했던 미국의 경기도 기대하던 수준이 되지 못하였고, 유럽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독일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거품경제의 소멸과 엔고로 일본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반면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순조로운 성장을 하여 세계경제에서 동아시아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진 한해였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3.8%라는 저조한 성장을 기록하였고 연간 경제성장률은 92년의 4.7%보다도 낮은 4.5%로 13년만의 최저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물가는 기대이상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

리나라 총수출에서 섬유를 제치고 1위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전자산업도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자제품 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월등히 높은 최첨단 산업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국내 경제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총수출이 75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 전체 수출액의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반도체산업이 명실공히 우리나라 제1의 수출전략산업이며 핵심산업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 산업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변화가 있었다. 종래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조립 생산의 비중이 높았던 것이 올해 역전되어 부가가치가 높은 일관 공정부문의 생산 및 수출비중이 월등하게 높아지므로써 반도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었다.

국내의 경제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반도체산업이 견실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은 세계반도체시장의 수요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반도체업체의

남다른 노력과 앞을 내다보는 과감한 투자, 우수한 기술 인력의 양성, 그리고 노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 생각된다.

내년의 세계경제는 올해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을 포함한 전자산업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 첨단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통상마찰에 대비한 국제협력관계를 모색하고 과감한 해외투자 확대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기업경영의 혁신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기술을 바탕으로 한 최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경영의 초점을 고객에게 맞추는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을 해야 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경영혁신의 중심 테마가 되고 있는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전업계가 도입하여 94년에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한해가 되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야 하겠다. Innovation은 국제경쟁력 제고의 출발이다.